



###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 <61> 부처님을 파는 도둑들

옛날 어떤 사냥꾼이 살고 있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냥을 하니 짐승들도 그를 두려워하고 경계하여 눈앞에서 얼씬거리지도 않았다. 사냥을 나가도 짐승을 잡지 못하게 되자 사냥꾼은 괴로워 내었다. 사냥꾼은 스님처럼 옷을 입고 소매가 넓고 긴 장삼 속에 활을 감추고 사냥터로 나갔다. 노루와 사슴들은 자비로운 스님인줄 알고 아무런 의심 없이 사냥꾼 옆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사냥꾼은 장삼 속에 감추어 둔 화살을 꺼내 짐승들을 쏘아 죽였다. 이렇게 선하고 어린 스님으로 둔갑하여 짐승을 잡았던 사냥꾼처럼 부처님을 팔아 잇속을 행하는 도둑들이 있다. <선가귀감> 61장에서 말한다.

산 스님은 말한다.

末法比丘 有多般名字 或烏鼠僧 或啞羊僧 或秃居士 或地獄淨 或袈裟賊 噫其所以以此

말세에는 행실이 나쁜 비구 스님에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름이 붙는다. '박쥐중' '병어리 스님' '독거사' '지옥저끼기' '가사 입은 도둑'과 같은 이름들이다. 아! 이렇게 안 좋은 이름으로 세상 사람이 말하는 까닭은 여래를 팔아 온갖 나쁜 일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 불법 팔아 생계 유지하면 '가사 입은 도둑'

#### 세상 잇속 버리고 '소욕지족'의 삶 살아가

'말세(末世)'는 부처님도 안 계시고 부처님의 법도 세간에서 사라지므로 참 불법을 만나기도 어렵고 배우기도 어려운 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양질호피(羊質虎皮)'와 같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부처님의 제자인 척 하여, 공부는 않고 세상의 잇속만 좇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절에 가면 스님인척 하고 세속에 나가면 속인인척 하여 스님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면서, 세상의 잇속을 찾아 때로는 스님 노릇도 하고 때로는 속인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를 일러 '박쥐중[조서승(烏鼠僧)]'이라고 한다. <불장경(佛藏經)>에서 이르기를 "박쥐는 새를 잡으려고 할 적에는 땅속에 들어가 쥐가 쥐가 되고, 쥐를 잡으려고 할 적에는 공중에 날아가 새가 된다. 그러나 실로 새 속에도 낚시 줄 없으니 그 몸에서는 낚

새가 나고 늘 어두운 곳을 좋아한다. 사리불이여! 계행을 깨뜨린 비구도 그와 같아서 올바른 스님 속에도 못 들고 세상사람 속에도 끼지 못하는 중도 속인도 아닌 것을 '박쥐중'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출가하여 도를 닦는 척하고 법을 아는 척하다가도 실법을 하려면 혀가 굳어 말문이 막히는 스님이 있다. 그리하여 참선을 하는 사람은 강사가 아니라서 경전을 모른다고 하고, 경을 보는 사람은 마음을 뒤아보지 않아서 참선을 모른다고 한다. 근본을 알고 있어도 겸손한 뜻으로 그런 말을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수십 년 공부한 수행자들이 정말 부처님의 법을 몰라 말문이 막힌다면 기가 막힌 일이다. <대지론>에서 이르기를 "파계승은 아닌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몰라 지혜가 없으므로 좋고 나쁜 것을 구별 못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모른다. 옆에서 사람이 죽었더라

도 마치 병어리 열소처럼 소리 칠 줄 모르는 사람과 같으니 이를 일러 '병어리 열소중[아양승(啞羊僧)]'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머리를 깎고 목덜 옷을 입은 것은 스님 모습인데 마음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돈을 벌어야 상에 나가 장가를 들이 살까?' 하는 생각뿐이니 이를 일러 '머리 깎은 거사'라고 한다. 올바르게 못한 여러 스님들의 행태에 대해서 서산 스님은 말한다.

裨販如來者 撥因果非排福 沸騰身口 迭起愛情 可謂惡也 避僧避俗日 烏鼠 舌不說法日 啞羊 僧行俗心日 秃居士 罪重不運日 地獄淨 賣佛鬻生日 被袈裟賊 以被袈裟賊 謹此多名

여래를 판다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인 척 하면서도, '인과를 밟지 않아 뒷날 받게 되는 과보인 죄나 복이라는 것은

없다' 하여, 몸종이와 말로 물 꿇듯 입을 지어 설 새 없이 애증(愛憎)을 일으키는 것이니 참으로 가엾고 안타까운 일이다. 제 잇속을 찾아 주변상황에 따라서 낮에는 스님의 복장으로 있다가 밤에는 속인의 복장으로 바뀌 입고 이중 생활을 하는 사람을 '박쥐중'이라고 한다.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조금도 없으므로, 살아 있는 세지 혀가 있는 데도 불법(佛法)을 간단명료하게 설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병어리 스님'이라고 한다. 겉으로는 스님의 형상으로 생활하지만 속으로는 세상 사람처럼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머리 깎은 거사'라고 하여 '독거사(獨居士)'라고 한다. 스님의 법을 쓰고 있지만 지은 죄가 하도 나쁘고 죄질이 무거워서 지옥에서도 움푹딱딱할 수 없는 사람을 '지옥 저끼기'라고 한다. 스님의 가사와 장삼을 입고 부처님의 제자인양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가사 입은 도둑'이라고 한다. 이들은 모두 가사를 입고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많은 이름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 조심해야 할 일들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라면 모름지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부처님의 법대로 사는 수순행(隨順行)을 함으로써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기뻐야 한다. 세상의 잇속을 버림으로써 번잡한 일을 없애고 시끄러운 곳을 떠나 늘 고요한 곳에 머물러서 공부해야 한다. 언제나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여 욕심이 없는 순결한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남이 실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삶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두타행(頭陀行)'을 실천해야 한다. 작은 죄라도 두려움을 내고 부끄러워하며 그 허물을 꾸우칠 수 있는 깨끗한 삶으로 '청정행(淸淨行)'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나가는 공부만이 깨달음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다.

■원순 스님(승사사 인월암)

###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3>



#### 심리적 문제의 원인

불교에서 상담심리학의 인간중심적 인간관에서 보자면 인간에게 심리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에서는 인간이란 누구나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라 한다. 인간중심적 접근에서는 인간이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그 경험성에 실현하려 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인간에게는 심리적 문제가 있고, 괴로움(苦)이 있어 심리치료나 상담을 하며, 불교적 가르침을 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우려 한다.

이러한 인간의 심리적 문제, 고통의 원인을 보는 시각은 상담심리학과 불교가

다고 본다. 외부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의 정서적 혼란을 일으키는 여건을 만든다. 정서적 혼란을 가져오는 신념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신념에 따라 스스로를 정서적으로 혼란하게 만드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중심적 접근에서는 자아 구조와 유기체의 경험 간의 불일치 때문에 부적응이 일어난다고 본다. 이와 반대로 자아와 유기체의 경험 간에 일치성이 있으면 잘 적응하는 상태가 되며, 이런 상태에서는 모든 경험에 개방적으로 되고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된다.

#### 심리적 문제 원인은 자신이 만든 정서적 혼란 "윤회하는 동안 누구나 괴로울 수밖에 없다"

각각 다르며, 상담심리학 내에서도 각 조류별로 시각차가 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개인의 성격이란 태어나서 생후 5년까지의 유아기의 여러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이 시기에 성취 에너지가 집중되는 부위의 이동에 따라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등을 거치면서 어떠한 성장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불안, 신경증 등의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니면 진정 사랑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잘 적응하는 개인이 되느냐'가 결정된다고 본다.

행동주의에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학습한 탓에 문제가 생긴다. 인지심리학에서는 비합리적 신념이나 왜곡된 사고 때문에 심리적 문제가 생긴

불교에서는 인간의 문제를 심리적인 측면에 국한해서 다루지 않는다.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문제요, 인생이란 곧 괴로움[苦]이라고 말한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윤회 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회하는 이 세상을 돌고 도는 동안에는 누구나 괴로울 수밖에 없다.

삼법인(三法印)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물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은 무상한 존재며, 실체적인 '나'가 없다. 무상하므로 괴롭고, 실체적인 '나'가 없는데도 '나'를 찾으려 하고 '나'란 허상을 만들어 집착하니 괴롭다. 그래서 제행무상(諸行無常)이요 제법무아(諸法無我)이니, 모든 것이 괴로운 것이다[一切皆苦].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 한입에 쏘옥~ 불교상식

#### 총림(叢林)

3월 초 영축총림 방장 후보에 원병 스님이 추대됐다. 영축총림은 통도사를 지칭하는 다른 이름이다. 조계종 산하 사찰 가운데 총림(叢林)으로 지정된 사찰은 모두 다섯 곳. 영축총림 통도사를 비롯해, 조계총림 송광사, 해인총림 해인사, 덕숭총림 수덕사, 고

불총림 백양사의 총 다섯 총림이 있다. 이 가운데 백양사가 1996년 총림으로 공식 승격돼 총림으로의 역사가 가장 짧다.

총림(叢林)은 많은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화합하여 함께 배우기 위해 모인 것을 나무가 우거진 수풀에 비유한 것에서 시작된 말이다.

<지도론(智度論)>에 의하면 "승가(僧伽)는 중(衆, 무리의 뜻)의 뜻이니 많은 비구가 한 곳에 화합하여 머무는 것을 승가라고 한다. 마치 큰 나무들이 숲을 이룬 것을 림(林)이라 함과 같으니 승가(僧伽)가 모여 사는 곳으므로 총림이라 한다"고 설한다.

지금도 참선수행 전문도량인 선원(禪院)과 경전교육기관인 강원(講院), 계율 전문교육기관인 율원(律院) 등을 모두 갖춘 사찰을 지칭하는 말이 됐다.

불교교육의 총화, 종합대학이라 말할 수 있는 총림을 이끄는 수장이 바로 방장(方丈)이다.

해인총림은 조계종 종정인 법전 스님이, 조계총림은 보성 스님이, 덕숭총림은 원담 스님이, 고불총림은 지종 스님이 방장을 맡고 있다. 태고총림은 태고종 종정인 해초 스님이 방장을 맡아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



그림 : 문병성

## 제9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대한불교진각종은 진각종 교학 확립과 불교 및 밀교연구 발전을 위해 '제9회 진각논문대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 ◆공모분야 및 주제

분 야	공모편수	주 제		비 고
		지정 주제	자유 주제	
진각종 교학	2 편	① 법백의 사자상승 ② 재가와 출가 (대승불교를 중심으로)	제한 없음	지정 주제 내용 • 의미 • 역사적 의미, 전개 • 지역적 전개 양상 • 현재적 의미와 현상 • 미래지향적 모습
불 교 일반	3 편			
밀 교 일반	3 편			

- ◆공모분야별 지정주제 응모자에게 우선 선정권을 부여합니다.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전형방법 : 논문계획서 1부 및 인적사항 1부 (소정 양식:진각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공모일정 : 접수 마감 - 2007년 4월 27일(금요일)  
당선작 발표 - 2007년 5월 29일(화요일) 예정  
당선논문발표회 - 2007년 11월 15일(목요일) 예정
- ◆당선작 상금 : 당선작 상금 : 최우수 1편(500만원), 선정 7편(편당200만원)
-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타 논문 공모제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136-865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학연구실 인터넷홈페이지 www.jingak.or.kr / e-mail : bubsung@jingak.or.kr 전화 (02)913-0133, 0134 / 전송 (02)913-0135

###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 진리의 종을 널리 널리 울려 줄

## 법보시용 책자 원고를 모집합니다

중생과 부처가, 속세와 깨달음이 고구정녕 둘이 아니건만 여전히 "나는 여기에 있고 법은 저기에 있는" 나날이 거듭되기에, 우리에게는 다시금, 또 다시금 "존재의 중심자리"를 상기시키는 "사랑과 자비의 응원군"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출판부에서는 전국 각지의 사찰과 선방, 대중강연 장소를 울렸던 명 법문들을 활자화시켜 더욱 큰 공감대로 이끌어내고자,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법보시 책자로 꾸밀 원고를 모집합니다.

- 감동 있는 설법으로 대중의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 법문으로 녹취한 원고 혹은 녹음 테이프
- 큰스님의 일화, 수필, 법문, 명상록, 대담, 평론 등 한 권의 책자로 엮을 만한 자료

제출처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출판부 컴퓨터 파일인 경우에는 yoyoyi91@paran.com 로 보내시고, 019-503-9152로 확인 요망

문의 : (02)2004-8246, 019-503-9152 (책자 출판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상담 후 확정)

현대불교신문사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 02-2004-8246(출판부)